

■ 2024년 국제예술네트워크지원사업 추가공모 지원심의 총평(통합)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4년도 국제예술네트워크지원 추가 공모 지원심의회의
- 회의일시 : 2024년 5월 2일(목) 10:00~13:00
- 회의장소 :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집 2층 영상회의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김민정, 김정연, 박선희, 배남우, 오영주, 조화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한 2024년 국제예술네트워크지원사업의 추가공모로 진행된 이번 사업은 기존의 '예술가해외레지던시지원'과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사업을 통합하여 개선한 사업으로서 다양한 국제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사업을 발굴하여 한국예술의 국제 네트워크 다변화와 중장기적 네트워크 활성화 및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 사업은 네트워크 구축과 네트워크의 활용이라는 두 가지 사업 유형을 구분하여 지원하며, 유형① 네트워크구축의 경우 지정/비지정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국제예술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해외 파트너와 협력하여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유형② 네트워크활용의 경우는 기존에 구축한 국제예술네트워크를 활용한 사업을 통해 지속과 확장의 가능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공모는 문학, 시각예술, 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분야에서 총 284건의 지원서가 접수되었고, 이중 행정 결격 12건을 제외한 272건의 지원서에 대하여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1차 서류심의는 장르별로 진행되어 분야별 전문심의 위원들이 2주에 걸쳐 지원서류를 전수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유형을 구분하여 유형① 네트워크구축의 경우 신청자/단체의 역량 및 사업에 대한 이해도, 사업계획의 충실성·타당성·실현가능성, 국제적 기대효과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였고, 유형② 네트워크활용의 경우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정도를 평가 기준에 추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1차 장르별 서류심의를 통해 7개 장르에서 유형① 네트워크구축 7건, 유형② 네트워크활용 27건을 포함한 총 34건이 2차 통합심의 대상(해외 협력기관에서 2차 심의를 진행하는 유형① 네트워크구축 지정 프로그램 제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차 심의는 2차 심의 대상으로 선정된 6개 장르의 전담심의위원 6인이 34건의 심의 서류를 모든 원점에서 전수 검토하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진행된 2차 서류검토를 토대로 이루어진 2차 통합 심의회의는 1차 심의를 통과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한 만큼 모든 평가 기준에서 부족함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최종 선정자를 가리는 과정은 오랜 시간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진행되었으며, 혹여 타 장르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특정 장르가 소외되지 않도록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형① 네트워크구축 3건, 유형② 네트워크활용 14건으로 총 17건을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심의에는 본 사업의 취지에 대한 지원자의 이해도가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작용했습니다. 네트워크 구축 유형에서는 해외 파트너의 국제적 위상이나 사업 내용의 의의를 떠나 새로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실험성과 구축된 네트워크가 확장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심의하였습니다. 네트워크 활용 유형의 경우, 기존에 구축한 국제예술네트워크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다소 모호한 판단이 작용할 여지가 있었으므로 단순한 협약이나 친분을 배제하고 실제 네트워크 협력 활동의 여부와 지속가능성을 눈여겨보았습니다. 무엇보다 해외 파트너와의 협업이 본 지원 사업이 요구하는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단순히 공간과 시간을 제공받는 사업보다 '협업' 및 '공동'의 활동과 참여를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지원 규모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계획을 통해 지원한 사업의 규모를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예산의 합리성과 현실성이 매우 중요한 심의 기준이었습니다. 지원자 가운데 예산 집행의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제시하는 근거가 부족한 사례도 있었지만 본 지원사업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한 지원서들은 예산의 합리성과 실현 가능성도 동시에 제시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사업인 만큼, 큰 예산이 소요되는 현실을 일견 이해하지만, 사업 내용과 예산계획안의 합리성은 지원서의 신뢰성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더욱 성실한 예산계획안 작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우리나라 예술가들의 국제적인 위상이 한층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 네트워크의 지역과 범위도 확대되고 있고, 협력 기관의 양상도 다양화되고 있었습니다. 해외 주류 기관과 공연장, 페스티벌 등에서 작품을 발표하며 네트워크를 확장해 가는 활동들도 매우 인상적이었으나 무엇보다도 과거와 달라진 점은 완성 작품을 국제 무대에 소개하는 단발적 행사가 아닌 해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창제작의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본 지원사업의 역할이 막중함을 더욱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더 많은 지원을 못하는 것이 아쉽지만 우리 예술가들의 국제 무대에서의 지속적인 활약을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심의위원 일동